

4월 연차 대회에서 새로운 부름이 발표됨: 한국에서 온 2명의 지도자가 임명됨

지난 4월 5-6일에 개최된 연차 대회에서 12명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이 부름을 받았고 세 개의 칠십인 정원회가 추가로 조직된다고 발표되었으며, 또한 134명이 새로 생기는 직책인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외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속한 세 분의 총관리 역원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부름 받았으며, 본부 청년회 장단 보좌 한 명이 새로 부름 받았다.

이들의 성명과 자세한 사항은 제167차 연차 대회 보고서가 실리는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에 포함될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부름 받은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은 김종열 장로와 고원웅 장로이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앞으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일할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거주하게 된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및 태평양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은 칠십인 제삼 정원회를 구성하고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 및 남미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은 칠십인 제사 정원회를 구성하며,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은 칠십인 제오 정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가 브라질의 캄피나스와 뉴멕시코의 앨버커키에 성전 건축을 위한 대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로웰 디 우드 장로 장례식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일원이며 태평양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던 로웰 디 우드 장로가 교회 업무차 사모아를 방문하던 중 지난 3월 7일에 6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그의 장례식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3월 12일에 거행되었다. 유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관장단 및 기타 총관리 역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장례식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우드 장로가 앨버타 주, 카드스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광범위한 지역을 두루 옮겨 다니며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다고 말했다. 우드 장로의 진취적인 삶은 탁월하고도 경탄할 만한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틴 장로는 태평양 지역 회장단에서 우드 장로의 보좌로 봉사하던 칠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와 지역 관리 역원인 펠립 비 미첼 장로가 보내 온 추도문을 대독했다.

이 두 사람은 추도문에서 태평양 지역의 성도들을 대신하여 지난 수년간 태평양 지역에서 성도들이 진실로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시온의 대업을 위한 우드 장로의 헌신을 높이 기렸다.

우드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학사 학

위, 몬테나 주립 대학에서 석사 학위, 버클리 대학에서 농업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9년에 그는 브리감 영 대학의 농생물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즈라 태프트 벤슨 농업 및 식량 연구원의 수석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교회의 복지부에서 봉사하던 중, 한때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던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다시 복지 사업부로 복귀한 그는 후에 관리감독단의 지시하에 일하는 뉴질랜드의 실무 책임자(RMTA)가 되었으며, 이어 아시아 지역의 실무 책임자(DTA)가 되었다.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실무 책임자(DTA)로 봉사하던 중, 1992년 6월 6일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을 받았다. 유가족으로는 그의 아내인 로나 콕스 우드 자매를 비롯하여 여 5자녀와 13명의 손자들이 있다.

새로 부름 받은 대릴 더블류 해리스 서울 선교부장과 크리스틴 해리스 자매



대릴 더블류 해리스 선교부장(55세)은 아이다호 폴스 아이다호 암몬 스테이크 암몬 제8

와드 출신으로 주일학교 교사, 지역(area and region) 공보 책임자, 고등 평의회, 스테이크 선교부장, 감독의 보좌, 아론 신권 고문, 상로 정원회 회장, 한국 서울 선교부의 선교사, 해리스 출판사의 임원 등을 역임했으며, BYU에서 정보 통신학 학위를 받았으며, 아이다호 주립 대학에도 다녔다. 아이다호 에메트에서 출생했으며, 부모는 리드 잉그벌 해리스와 에블린 페이 웬그린 해리스이다. 크리스틴 소렌슨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크리스틴 해리스 자매는 꿀벌반 지도자, 와드 초등학교 회장, 상호부조회 회장의 보좌, 초등학교 교사, 와드 도서관 책임자, 유년대 지도자를 역임했으며, 남부 유타 대학에 다녔다.

아이다호 포카텔로에서 출생했으며, 부모는 웨인 소렌슨과 위니스 소렌슨이다.

전국 청년 대회 준비 모임 준비 위원 60여 명이 현장 답사함

지난 4월 5-6일, 약 60여 명의 준비 위원들은 충북 영동에 위치한 마니산 관광 농원에서 '전국 청년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답사 모임을 가졌다. 개척자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된 이번 전국 청년 대회는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와 함께 첫 준비 모임을 가진 이래, 장소를

선정하고 세부 조직과 프로그램들을 구성한 이번 모임까지 각 신학 연구원 대학부 평의회 교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전국 청년 대회의 개최가 결정되고 지난 3월 16일 처음 준비 모임을 가졌던 전국 신학 연구원 평의회 임원들은 연휴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12시간에 걸쳐 목적지에 도착해서 쉴 틈도 없이 주변을 답사하고 숙박과 모임을 위한 시설물들을 점검했다. 준비 위원들은 모두 수려한 주위 경관과 깨끗하고 편의 시설이 잘 준비된 대회장에 흠족해 하며 좋은 장소를 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의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번 개척자 150주년 기념 전국 청년 대회에 얼마나 큰 기대와 의의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안식일 아침, 전날의 피로도 잠시 잊은 채 경건한 차림과 마음으로 성찬식과 간증 모임을 가진 일행들은 다시 한 번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을 다짐하였다.

오후가 되어 서로의 먼 여정을 염려하고, 5월 청주에서의 다음 준비 모임을 기억하며 헤어지는 길엔 벌써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금강을 낀 도로를 달리며 잠시 돌아본 마니산 관광 농원의 하늘 위로, 8월 전국에서 모여들 한국 말일성도 청년들의 힘찬 기운이 벌써부터 감도는 듯 하였다.

1,500여 한국 말일성도 청년들의 어우러짐의 터가 될 전국 청년 대회는 1997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강미경)

서울 동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 함께 모인 신권 지도자들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안식을 얻도록 하자"(엘마서 12:37)를 주제로 지난 2월 22일 23일 양일간 스테이크 센터인 미아 와드에서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서소영, 김정숙 자매가 신앙에 대한 간증을 전해 회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으며,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인 최미영 자매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는 역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최진우 형제는 신앙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전종철 서울 선교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선교사로서 훌륭하게 봉사하고 귀환한 선교사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모든 회원이 일심 동체가 되어 선교 사업에 힘써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이우영 형제는 복음 가운데 기도와 감사를 잊지 않고 생활하자고 말씀하였다.

일요일 총회에서는 스테이크 행사를 통하여 상계 1와드와 상계 2와드가 합쳐져서 상계 와드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도봉 와드에서 의정부 지부가 분리 개설 되었으며, 서울 선교부 소속이었던 동두천 지부가 서울 동 스테이크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서울 동 스테이크는 기존 5개 와드 1개 지부에서 4개 와드 3개 지부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상계 1



와드 이춘호 감독과 상계 2와드 김일 감독이 해임되고 새로운 상계 와드 감독에는 최현철 형제가, 제1보좌에 김문구 형제, 제2보좌에 이익주 형제가 부름 받았으며, 초대 의정부 지부장으로 김규태 형제가, 제1보좌로 이종철 형제가 부름 받았고, 새로운 도봉 와드 감독으로 박진수 형제, 제1보좌에 정훈 형제, 제2보좌에 구분동 형제가 부름 받았다. 또한 최동일, 최현철, 안상현 형제가 고등 평원원에서 해임되었으며 배상기, 이춘호, 김일 형제가 새로 고등 평원원으로 부름 받았고, 번동 와드 이충한, 한진근, 장위 지부 최충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

말씀 순서에서 김일, 이춘호, 배중호 형제의 간증과 방아람 자매의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우승에 대한 간증을 전했으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김승자 자매가 순종에 관해, 스테이크 선교부장인 반상호 형제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했고, 한인상 서울 성전장은 경전을 읽고 생활에 적용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최석구 스테이크 부장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도록 하자는 스테이크 주제를 상기시키면서 모든 회원 및 역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사랑의 말씀을 전했다.(박찬식)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지난 3월 15일 미아 와드에서 80여 명의 회원 및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석구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가졌다.

이 모임에서 1956년에 개종한 임수빈 형제가 유락동 시절의 한국 초기의 교회 이야기를 전해 주었으며, 이우영 형제는 말일성도 초기 개척자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고, 상호부조회 모토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를 더욱 빛나게 하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발표 순서에서 상계 와드에서는 패션 쇼를, 번동 와드에서는 1842년 상호부조회를 재연하는 나레이션, 도봉 와드에서는 위대한 상호부조회 회원을 소개하는 모노 드라마를 선보였으며, 이번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에서 서울 동 스테이크로 편입된 동두천 지부는 1989년 성도의 뱃에 소개된 바 있는 개척자의 이야기를 그린 '빨간 코드'를 연극으로 발표하여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장위 지부에서는 3대의 회원이 모여 시낭송 및 찬양을, 미아 와드에서는 형제·자매가 어우러진 포크 댄스를 발표했다.(박찬식)

서울 북 스테이크

반연례 교육 실습

지난 3월 16일,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는 모든 주일학교 역원 및 교사, 현임 역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교수법과 반원들을 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에 관해 훈련하는 교육 실습 모임이 개최되었다.

모임은 7개 시범 모임이 15분씩 두 번 실시되고 그 후 6개 반으로 나뉘어 주일학교 각 반별로 파정 모임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복음 공과를 위한 적절한 질문, 소단원 즉석 토론, 사례 연구, 배심제 토론, 주의 산만을 다룸, 교사 보조 자료 준비 및 사용, 효과적인 대화 기법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번 모임은 새롭게 개편된 주일학교 회장단 교사 그리고 현임 역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 주일학교에서 진행중인 각반 교육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활동 측

진 및 향상을 위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느끼게 하였다.(신영석)

서울 영동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3월 15-16일, 양일간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와, 김종열 장로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남용 부장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관해서 말씀했고, 이어서 박용민, 박봉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차종화 형제가 간증을 전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송원철 형제, 이정희 자매, 배나라 자매, 김백주 형제, 차종화 형제가 간증을 전했다. 이어서 특별히 초대된 이준택 서울 북 스테이크 부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인 기술 교육과 자립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였다.

일요일 총회에서는 영동 와드 초등협회 회원인 정현철 형제의 양증 맞고도 아무진 간증을 시작으로 고혜원 자매, 김규찬 형제, 박영삼 형제, 최희숙 자매, 최기태 형제에 이어 스웨인 서울 서 선교부장 내외와 최남용 형제의 간증이 계속되었다. 또한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은 빌린 강화와 입은 지 3,4년 되는 손으로 만든 외투와 약간의 돈을 가지고 요셉 스미스의 '나아가십시오'라는 권고에 순종하여 어려운 가운데 여행하면서 전도했던 브리감 영의 신앙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조상들의 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6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8명의 연사들이 20여 차례의 훌륭한 간증을 전했으며, 분당 와드에서는 영적으로 합창을 잘 준비하여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오륜 와드의 윤형식 형

제, 성남 와드의 김유석 형제가 대제사로, 오륜 와드의 한민석 형제, 분당 지부의 송종훈 형제, 영동 와드의 박명제, 김규찬 형제, 신장 지부의 문병렬 형제가 장로로 지지 받았다.

분당 지부 신축 건물 기공식

지난 3월 23일, 영동 스테이크 분당 지부에서는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분당 지부 건물 부지에서 신축 건물 첫삽을 뜨는 기공식을 가졌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오랜 숙원이던 예배당 건물을 갖게 된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진행되었다. 서희철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 순서에서 분당 지역 건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안으로 인도하고 이 지역에서 가장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시공 회사에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튼튼한 건물을 지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분당 지부 건물 신축 부지는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160번지 대지 533평 연건평 120평의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로 설계되었으며 금년 12월 말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원강)

서울 서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3월 15, 16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의 감리하에 '절음의 폭을 넓히라'라는 주제로 약 310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소렌슨 장로는 미래의 선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에 대해 경고했으며, 청소년들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민선홍 자매는 귀환 선교사로서 물몬경과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가는 기적을 볼 수 있었다고 간증했으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오명신 자매는 150년 전에 보여 준 개척자들의 희생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어서 고등 평의원인 신국제 형제는 성전 의식에 대해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김용 형제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했으며, 소렌슨 장로는 헝클리 대관장의 선교사 시절에 커다란 마음의 변화를 겪었던 경험에 대하여 말씀과 간증을 전해 주었다.

일요일 총회에서 김은희 자매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부모님의 많은 도움에 감사하며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 선교 사업을 나가면 큰 기쁨을 맛볼 것을 확신한다고 간증했으며,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윤세영 형제는 청소년들이 경전을 공부하도록 부모들이 모범을 보일 것을 권고하였고, 이상태 스테이크 부장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앙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다. 또한 홍경자 자매는 참된 교회에 속함을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에 감사하는 간증을 나누었고, 소렌슨 장로는 회원 선교 사업을 강조하면서 질서와 사랑의 원칙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하고 지도자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우리의 눈을 예언자에게 고정시켜야 한다고 말씀했다.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참석자 대부분이 영적인 신앙의 꽃을 피우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은 대회였다. (윤여창)



△ 서울 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개척자 150주년 연극제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일에 맞추어 가진 연극제가 지난 3월 29일 노량진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6개의 와드가 참여한 이번 연극제에는 초기 성도들의 개척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우리의 유산-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를 읽고 그 안에서 주제를 정해 연극화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전체적인 주제 아래 12명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된 노량진 와드의 연극을 시작으로 요셉 스미스가 카테지 감옥에서 왜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야 했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그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정확히 알려 주고 싶었다는 사당 와드 자매들의 감동적이며 수준 높은 연기가 이어졌다. 특별히 사당 와드의 연극에는 그동안 활동이 저조했던 자매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간증을 키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할머니까지 20여 명이 참여한 상도 와드는 마틴 손수레 부대 이동 과정을 잔잔하지만 강한 단결력으로 실감나게 보여 주었으며, 요즘 유행하는 립싱크를 이용한 봉천 와드 자매들의 재미있는 연기는 신권을 지지한다는 나레이션으로 마치면서 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서 신림 와드 자매들은 눈보라가 세차게 부는 효과를 실감나게 연출하여 회원들에게 신앙과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고, 마지막으로 개척자들의 어려웠던 상황과 희생을 마음으로 느껴 보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된 이 현실에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부름에 최선을 다하자는 낙성대 와드의 연극은 간증을 전하는 마음으로 기도 후 무대에 오른 정성 때문에 모든 회원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졌다.

이번 연극제는 각 와드마다 상호부조회 회원만이 아닌 각 보조 조직에서도 참여하여 도움을 주었으며, 의상과 소품까지도 세심하게 준비한 정성이 돋보이는 모임이었다. (김선홍)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강서 스테이크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맞이하여 산하 10개 와드의 신권 지도자 및 회원, 구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통해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동안 닦아왔던 재능들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전문가와 같은 솜씨를 발휘했다. 영등포 지부에서는 아름다운 합창을, 김포 와드에서는 흥겨운 에어로빅을 준비해서 발표했으며, 화곡 와드에서는 영화 시스터 액트에 나오는 합창을 모방하여 들려주었고, 신정 지부에서는 세월을 낚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창작 교전 무용을 선사했다. 이어서 개봉 와드에서는 합창을, 신길 와드, 신월 와드, 강서 와드, 역곡 지부에서는 개척자 150주년을 기념하여 개척자들의 역경과 고난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연극을 각각 준비하여 발표해서 참석자들에게 신앙의 선조들의 회생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으며, 부천 와드에서는 수화로 찬송가를 불러 분위기를 경건하게 해주었다. (이수진)

안양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안양 스테이크 대회가 잠언 30장 8-9절을 대회 주제로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의 감리하에 지난 3월 8-9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8일에 열린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은 지난 1996년 11월 지역 훈련 모임에서 강조한 추진 사항과 안양 스테이크 개척자 150주년 기념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최정식, 최수원, 심상문 형제는 선교 사업, 가정 복음 교육, 성전

사업 등에 관하여 말씀하였다. 또한 고원용 장로는 7월 19일 전세계적으로 하게되는 150시간 봉사 활동 및 6월 6일 헌혈 운동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중요성에 관해 말씀하였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구자화 부장이 '온전한 성도로서의 생활'에 관해, 한계분 자매가 '말과 행동면에서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생활'에 관해, 김정희 자매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생활'에 관해, 전덕남 형제는 '영적인 생활면에서의 온전한 성도로서의 생활'에 관해 말씀하였으며, 고원용 장로는 엘마서 1장 25-31절을 인용하며 십일조의 중요성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하였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악기 연주와 더불어 안산 와드 합창단의 아름다운 합창으로 시작된 일요일 총회에서는 스테이크 행사를 통해 오랫동안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봉사해 오던 이정근 형제와 독산 와드 감독으로 봉사했던 김병균 감독이 명예롭게 해임되었으며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에는 구자화 형제, 제2보좌에는 최윤환 형제, 독산 와드 감독으로 박상섭 형제가 각각 부름 받았다.

말씀 순서에서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은 '개척자 정신 구현'에 관해서 전했으며, 복음 선교사인 헤이스 장로와 서창현 형제는 초기 개척자들의 신앙과 회생에 대해 간증했고,

해임되는 이정근 부장은 1900-1970년대에 교회를 이끌어 온 네 분의 대관장님들의 모범을 배우자고 말씀했으며, 스웨인 서울 서 선교부장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병균 감독은 복음에 대한 간증과 감사함을 전했으며, 새로 스테이크 부장단으로 부름 받은 최윤환 형제는 성도들이 서로 존경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자고 권고했고, 고원용 장로는 7월 19일 갖게 되는 개척자 기념 봉사의 날과 6월 6일에 갖게 되는 헌혈의 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는 385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군포 와드 이길세 형제가 장로로, 시흥 와드 최정식 형제가 대제사로 각각 지지되었다. (박상섭)

안양 스테이크 독산 와드 제8회 모사리 발표회



안양 스테이크 독산 와드의 청소년들은 지난 3월 1일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을 초대한 가운데 제8회 모사리('모두 다 사랑하리'의 준말) 발표회를 가졌다.

김병균 감독의 환영 인사에 이은 2부 순서에서 수화와 합창으로 첫막이 열렸고, 이어서 청녀들은 허슬을 통해 발랄한 재능을 보여 주었다. 이번 발표회의 정점이었던 연극은 개척자 150주년을 맞아 브리감 영 대관장과 성도들이 폭도들의 살륙과 혹독한 추위를 극복하고 꿈에 그리던 시온의 땅, 솔트레이크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순종하는 성도들의 참 신앙을 잘 보여 주었다.



△ 대회가 끝난 후 함께 한 안양 스테이크 부장단. 왼쪽부터 집행 서기 김정일 형제, 1보좌 구자화 형제, 이영환 스테이크 부장, 2보좌 최윤환 형제, 스테이크 서기 송정태 형제

이 발표회를 통해 독산 와드의 9명의 청년·청녀는 서로 더욱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함께 참석한 스테이크의 청소년들과도 우정과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미영)

인천 스테이크

스테이크 운동장 식목 행사



△ 식목 행사에 참여한 인천 스테이크 회원들

식목일인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박동화 인천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청남·청녀와 독신 성인 및 가족 단위의 많은 회원들이 모여 특별 식목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테이크 센터 운동장 옆 담장에 이전부터 불규칙하게 심어져 있던 잡목을 깨끗이 정리하고 각 와드별로 할당된 100여 본의 나무를 적당한 간격으로 보기 좋게 심어 스테이크 센터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었다.

식목일과 한식을 겸한 이날은 성묘 등으로 회원들이 바쁜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크 부장단의 권고에 따라 각 와드 별로 감독의 인솔하에 많은 회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식목 행사는 4월 19일 열리게 될 독신 성인 주최의 문화 행사와 4월 23일 성전 추천서 소유자 전원이 참석하는 특별 성전 방문 등 4월 27일에 갖게 되는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위한 일련의 사전 준비 행사의 일

부였으며, 이날 심은 나무에는 식목한 회원 개인의 이름표가 걸려 있어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여 나무가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영성의 발전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성열)

대구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



△ 대구 스테이크 대회에서 말하는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

지난 3월 15-16일 양일간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1997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고 계신다." (엘머서 33:5)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15일에 가진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가장과 신권 정원회 회장이노스, 엘마 일세, 리하이처럼 가족과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주제로 열린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흥미희 자매, 임혜자 자매, 최정희 자매, 배덕수 형제, 권찬태 형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차대환 부장이 지난 3개월간 가족 선언문을 읽고 생활화함으로써 얻은 간증과 경험을 나누었다.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말씀에서 가족 선언문은 경전과 같으므로 경전에 부착하여 필요할 때 읽고, 암송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구원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지금 이 시기에 성도들은 고대 예언자

말라기와 살아 계신 예언자 히클리 대관장이 밝힌 가족 중심 즉 나의 조상, 부모, 형제,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사업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한편 일요일 총회에서는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이병만 형제와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차대환 형제, 김병만 축복사가 기도를 통해 얻었던 간증을 전했으며,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 내외도 함께 기도에 대한 원리와 간증을 전했다. 또한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1997-1999년의 대구 스테이크 3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이 계획 속에 대구 스테이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달성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다고 간증했다. 그는 인생을 대구 앞산 정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며, 자신의 욕망으로 채워진 모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버리고 증오심과 소중했던 무기를 던져 버리며(힐라맨서 5:51),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어 놓으므로써(힐라맨서 5:52) 정상에 오를 자격을 갖게 되고 정상에서 맞을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였다.

506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대명 와드 서상철, 김민수, 백경계 형제가 델기세테 신권의 장로로 지지 성임 되었다. 길외점, 송영희, 김은지, 김정애 자매를 비롯한 합창단이 영적으로 합창을 잘 준비하여 대회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주었다. (김재우)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지난 3월 22일,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가 산하 11개의 와드·지부가 3개 지역으로 나뉘어 대명, 김천, 영천에서 같은 시간에 진행되었다.

스테이크 부장단과 고등 평의원,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각 지역을 나누어 방문하여 모임을 감리하고, 진행하였다.

대구 지역은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이병만 형제의 감리로 대명 와드에서 수성, 중리, 대명 와드와 경산 지부가 함께 모여 행



△ 대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에서 대명 와드 자매들이 연극을 하고 있다.

사를 가졌다. 이병만 형제는 말씀에서 “자녀 양육과 남편 내조를 위해 하는 봉사가 말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상호부조회의 모토를 생활에 옮기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임순자 자매는 만 네 살이 된 어린 자녀가 선교사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행복을 전했다.

활동 발표 시간에는 고전 무용과 창작시 낭송, 연극, 사물놀이, 중창 등을 발표하여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다채로운 재능을 선보였다. 특별히 대명 와드에서는 연극을 통해 금년도 스테이크의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참석하신 회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한편 영천에서는 ‘화학 조미료의 유해성과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김정화 자매의 특강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상호부조회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윤순)

부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지난 3월 15일, 부산 스테이크에서는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가 개최되었다.

모임을 시작하면서 양기욱 스테이크 부장은 상호부조회 창립 155주년을 축하하는 말

씀을 전하였으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이무정 자매는 나부에서의 창립과 서부로의 개척의 시기에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보인 힘에 관하여 말씀하였다.

이어서 가진 발표 순서에서는 온천 와드에서 중창으로 봄치녀, 별을 불러 주었고, 학성 와드와 연산 와드에서는 한복 패션 쇼를, 수정 와드에서는 뮤지컬 ‘최진사댁 셋째 딸’을, 방어진 와드에서는 태극무를 선보였으며, 광안 와드에서는 기타 합주로 ‘헨델의 사랑바드’와 ‘소양강 처녀’를 연주해 주었다. 또한 해운대 와드에서는 초기 개척자 시대 성도들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신정 와드에서는 ‘시집가는 날’을 각각 연극으로 보여주어 갈채를 받았다. (이희숙)

수정 와드 시온의 밤

지난 3월 30일,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에서는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과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회원 및 새로운 개종자와 비활동 회원, 구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온의 밤 모임이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 1월 개종한 오은미 자매가 직장 동료들을 통해 개종하면서 얻게 된 간증을 나누었고, 선교사들이 준비한 비디오 시청과 와드 합창단에서 준비한 ‘저녁 닥쳐 와’ (찬송가, 102장)를 감상하였다.

이어서 정인성 감독은 로마서 1장 16절을 인용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위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은 출생, 성역, 사망,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말씀과 간증을 전했으며,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 부장은 예언자를 통하여 가족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가정의 밤을 정규적으로 갖고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다.

정인성 감독의 말씀 후에는 양영희, 이희숙, 예은정 자매가 피아노와 플루트로 Ich Liebe Dich(그대를 사랑해)를 연주하였고,

배슬기, 박성희, 김미영 자매는 ‘주는 이물을 사랑해요’를 중창으로 들려주었으며, 리시먼 선교부장의 말씀 후에는 스테이크 선교사들이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찬송가 70장)를 들려주어 모임을 영적으로 더욱 고양시켰다. (이희숙)

청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청주 스테이크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제 155주년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황충렬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스테이크 센터에서 개척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백경숙 자매가 초기 상호부조회의 조직에 대해 말한 후 청주 지역 자매들이 중창으로 ‘주 예수 님으려고’와 난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불렀으며, 둔산 와드에서는 최근에 침례받은 최인호 형제가 찬송가 24장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기도’를 피아노 연주로 들려주었으며, 찬송가 188장 ‘주 살아 계시고’를 중창으로 불렀고 이어서 안윤희 자매와 박영심 자매가 개척자 일지를 낭독했다. 또한 공주 지부에서는 찬송가 16장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와 2장 ‘높은 산 언덕 위’의 합창과 이명우 형제의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을 역임한 윤종숙 자매는 상호부조회에 속한 것에 대해 기쁨과 긍지를 갖는다는 말씀을 전했으며, 복대 와드와 한별 지부는 김영신 자매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추어 찬송가 6장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과 192장 ‘사랑의 빛 안에 들어가고’를 합창했다.

이어서 상호부조회 담당 고등 평의원인 김구환 형제는 신앙이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빛난다며 살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열매를 보여 주자고 말씀했으

며, 석교 지부에서는 찬송가 138장 '풍성하
신 주 은혜로'를 합창으로, 193장 '서로 사
랑해'를 수화로 불렀다.

황충렬 스테이크 부장은 교리와 성약 25편
을 예로 들면서 오늘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노래는 분명히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 대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을 권
고하였다. 상당 와드가 찬송가 151장 '천질
한 말들을 서로 하세'를 합창으로 들려주면
서 행사를 마쳤다. (배미일)

전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

봄비가 대지를 축축히 적서 주던 지난 3월
15일, 전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
행사를 가졌다.

1부에서는 노송 와드 박정림 자매의 하나님
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간증을 들었고, 2부
에서는 각 와드, 지부의 합창과 재능 발표가
있었다. 전주 와드의 '은밀한 기도'(찬송가,
78장)를 시작으로 중앙 와드의 '에모', 남원
지부의 '에델바이스', 정주 지부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리 와드의 '에델바이스',
노송 와드의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 위하여'
(찬송가, 25장)의 순서로 발표하였다. 이어
진 재능 발표에서는 중앙 와드의 황혜순, 최
인숙, 김경애 자매가 아리따운 한복을 입고
사랑의 시를 낭송했으며, 전주 와드는 청녀
들의 학교 생활을 소재로한 풍경을 준비했는
데 인기 댄스 그룹의 춤을 이미면 자매와 유
정식 자매가 청녀들과 함께 선보여 참석자들
에게 한아름 웃음을 선사하였다. 또한 정주
지부에서는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
는 제목 아래 마카레나 춤을 추었고, 노송
와드에서는 우리 교유의 멋과 흥을 같이 느
낄 수 있는 태극 부채 춤으로 마지막을 화려
하게 장식했다. (문순옥)

광주 스테이크

개척자 155주년 기념 상호부조회 창립행사

지난 3월 15일, 광주 스테이크에서는 상호
부조회 창립 155주년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조길자 자매는 "오늘날 우리는 후손들에게
개척자가 됩니다.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서
로 좀 더 가까워지고 또한 신앙과 헌신과 봉
사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했다. 또한 임종하 스테이크 부장은 환영 말
씀에서 "교회는 여성에게 가장 높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바로 자매
가 있는 세상입니다. 신앙이 강한 여인 루시
알 스미스처럼 세상을 바꾸는 데는 자매의
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했다.

이어서 5분 음악 순서로 정미경 자매의 인도
로 '신앙의 발자취로'를 모두 다 함께 불렀고,
금성 지부 자매들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낭송
하였다. 풍향 와드 자매들은 '세계 최초의 여
성 단체인 초기 상호부조회 설립 과정'을 주제
로 한 연극을, 농성 와드 자매들은 서부 이동
의 내용을 담은 '솔트레이크의 영광'을, 백운
와드 자매들은 초기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
박을 받은 상황을 담은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를 연극으로 보여 주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성도들은 활동을 통해서
초기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기억했
고 참여자 자신도 또한 '한국의 초기 개척자'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박유미)

대전 선교부 주최: 순회 강연회

지난 3월 22-23일 양일간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대전 선교부 주최로 순회 강연
회가 열렸다.

22일 모임은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최중배 형제의 감리와 홍병식 대전 선교부장

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창원 산업의 대
표 이사이며 대전 선교부장단 제1보좌인 조
용희 형제와 청주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하였
고, 현재 한국 교원 대학 영어 교육과 교수
로 재직 중인 최수영 형제가 초대되어 '경제
적 성공의 비결'과 '영어를 잘 하는 비결'에
관하여 강연하였다.

강연에서 조용희 형제는 "자기가 지닌 재능
을 극대화 시킬 것과 어떤 일을 할 때 시명
감을 가질 것, 그리고 가정의 강화를 통해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할 것"
을 권고했고, 최수영 형제는 CD-ROM 타이
틀을 이용한 영어 학습법을 소개하면서 "평
소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CD-ROM을 이용
하여 공부하고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제공하
는 영어반에 참석하여 실제 상황에 맞게 대
화를 연습해 본다면 영어 실력이 빨리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열린 모임에서는 조중현 순천 지방
부장과 지역 관리 역원인 고원용 장로가 연
사로 초대되어 강연을 하였다.

조중현 지방부장은 자신의 개종 이래 자신
의 영향을 받아 직접 간접적으로 교회를 알
게 되어 회원이 된 사람들을 열거하며 "한
사람을 변화시켜 행한 하나님의 사업은 엄청
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스
테이크, 우주, 하나님을 만드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였다.

어어서 고원용 장로는 20여 년 전 이 지역
에서 함께 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감회를 전
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동등한 가운데
가르치고 배웁니다. 말일성도들은 오늘의 시
련을 이겨내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
람들이다."는 것을 들어 자신이 교회를 사랑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올해 계획되어
있는 한국에서의 개척자들의 행사가 한국 성
도들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거
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모임은 앞으로 광주 스테이크 지역의 교회
홍보와 선교 사업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
이며, 성도들 및 구도자들에게 이 교회가 지닌
유산을 전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유용한 지식을

부산 신학 연구원

졸업식

지난 3월 8일 부산 신학 연구원에서는 마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 부산 스테이크 회원 및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민혜기 부산 신학 연구원장은 이 졸업식의 축사를 통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학 연구원을 통해 배운 복음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였으며, 염호경 부산 서 지방부장은 신학원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를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다. 또한 배태호 마산 스테이크 부장은 오직 귀 기울여 열의를 갖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양기옥 부산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가 배우고 얻은 지식들을 기꺼이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번 졸업식에는 부산 스테이크 13명, 마산 스테이크 10명, 부산 서 지방부 3명 등 총 26명이 졸업했으며, 전덕민 형제(학생 와드), 김정희 자매(마산 와드), 성동 형제(충무 와드), 김정일 형제(구포 지부)가 우등상을 수상했고, 박재열 형제(학생 와드), 김양희 자매(신정 지부), 백상봉 형제(해운대 와드), 김정옥 자매(마산 와드), 권영숙 자매(경화 와드), 김응조 형제(진해 와드), 강신용 형제(괴정 지부), 이희숙 자매(수정 와드)가 특별 증서를 받았다.(이희숙)



광주 신학 연구원

졸업식 및 입학식

지난 3월 8일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광주 신학 연구원 제30회 졸업식과 1997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광주 신학 연구원 관계자들과 신권 지도자, 지역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 이 행사에서 광주 스테이크 11명, 전주 스테이크 4명, 순천 지방부 2명 등 총 17명의 형제·자매가 영예로운 졸업 증서를 받았으며, 76명의 새로운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이 졸업식에서 영예의 우등상은 총장 와드의 최양국 형제는 졸업생 대표 말씀을 통해 신학 연구원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전했다.

임종하 광주 신학 연구원장은 환영 말씀을

통해 신학 연구원은 졸업만으로도 그 인격의 일부를 차지한다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키우도록 당부하며, 교육이 개종의 한 과정이 되며, 배움이 배움을 낳게 되므로 신앙을 갖고 열심히 배울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광주 신학 연구원에서는 이번 학기에 조용현 형제의 강의로 '해의 왕국의 결혼' 과정이 신설되어, 이 과정의 개설을 바라던 많은 독신 성인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양혜란)



개척자 이야기

정대판 형제



신학도에서 말일성도로

나는 1933년 7월 1일(음) 일본 오사카 시, 미나토 구 호케쓰 마쓰에서 태어나서 해방이 되던 해인 1945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라남도 여수로 이사를 해서 그 곳에서 성장하였다. 중학교 4학년 때(당시에는 중학교가 6년제였다) 장세천이란 친구와 가까워져서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중학교 6학년 때는 이 친구와 인생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퍼는 일을 과제로 삼기로 두 사람의 의기를 투합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조요한 이라는 선생님이 여수로 피난을 와서 우리 학교에서 강사 선생님이로 근무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세천이에게는 서울대 문리대 종교학과를 나에게도 수원 농대 농학과를 추천하시며 대학교를 마친 뒤 신학교에

가라고 권고하셨다.(조요한 선생님은 숭실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정년 퇴직을 한 후 이 학교 명예 교수로 계신다.) 우리 두 사람은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기로 굳게 결심을 하였다. 1952년 피난지인 부산 동 대신동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세천이의 종교학과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두 학기를 보내고 보니 나는 내가 배우는 학과가 내 적성에 맞지도 않고, 더구나 이렇게 4년을 마치고 다시 신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집안 형편 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1953년에는 장로교 총회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서울이 수복이 안된 관계로 대구에서 공부를 하다가 1954년 예과 2학년 때 현재 남산의 안중근 동산 뒷편에 있는 건물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곳에서 나는 회람어 시험에서 1등을 하였고, 독일어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며, 학회에 선발되어 논문 발표도 하고, 남대문 시장, 서울 역에서 노방 전도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세천이와는 계속 끈끈한 관계가 이어져서 여전히 세천이 학교의 종교학과 강의를 함께 들곤 하였다.

1956년 6월경이었다. 세천이가 영어 물문경 현책을 하나 건네 주면서 성경과 똑같은 책인데 한번 읽어 보라고 했다. 나는 나와 함께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있는 내 신앙의 선배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친구가 이단 중에서도 상 이단인 일부 다처 주의자의 교회에 나

간다니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세천이를 구출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논박할 증거를 찾기 위해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다. 키가 작아 수업 시간에는 항상 맨 앞줄에 앉았던 나는 그때부터 자리를 맨 뒤로 옮겨서 물문경을 읽어 나갔다. 이를 본 급우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그게 무슨 책이냐고 물었다. 성경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물문경이라고 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구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내게서 물문경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현재 목회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압구정동 소망 교회의곽선희 목사도 있었다.

장세천 형제(이제부터는 형제로 지칭하겠다.)로부터 권유를 받고 당시의 예배 장소인 서울 고등학교에 가서 안식일 모임에 참석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학생으로서 머리를 뺏뺏 깎은 이호남 형제가 목청이 좋은 소리로 성찬 축복문을 읽어 나가던 것이다.

1956년 8월 31일 정능으로 이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장세천 형제가 함께 가자고 졸라서 함께 놀아 보면 물문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가기로 했다. 똑똑 전동차 역 앞에서 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장세천 형제와 인사를 나눈 선교사님들과 회원들이 내 앞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장세천 형제 친구시죠? 저는 홍병식입니다.", "저는 양종환입니다.", "저는 현진섭입니다."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따뜻이 맞이해 주는 그 마음씨에 내 마음의 문은 열려 버리고 말았다.

삼위 일체도 안 믿는, 머리에 뺄 나고, 영



덩이에 꼬리 달린 사람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았는데, 가장 인간답고, 놀 때는 열심히 놀고,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느껴져 나는 돌아올 때쯤에는 9월부터 선교사와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말았다. 나는 게일 이 카(Gail E. Carr) 장로(후에 그는 초대 한국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다)와 복음 공부를 시작했다. 그 당시 한국은 북극동 선교부의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일본에 있으면서 대부분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하지만 한국어는 잘 못했기 때문에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통역을 해주었다.

그 해 10월이 되자 학교에서는 내가 물론 교에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신학교 교장 비서가 나를 찾아와서 신학교는 일반 대학교의 종교학과나 연세 대학교의 신학과처럼 신학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장로 교회의 목사 양성소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를 나가는 것을 그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를 그만두라고 했다. 하루는 설교학 시간인데 강사인 강신명 목사가 교실에 들어오더니 "이 반 안에 물론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은 당장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친구인 장세천 형제를 구하려고 다니던 이 교회에로 나는 오히려 개종을 결심하게 되었고, 드디어 나는 신학교에서 뛰쳐 나오기로 결심하였다. 친구인 장세천 형제는 근심스런 얼굴로 잘 생각해서 결정하고 나중

에 자기를 원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내 인생의 향로가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린양 교회를 운영하며 장학금을 받아 학비와 생활비로 썼던 나는 이를 친구에게 인계해 주었지만 이로 인해 나는 수입이 없게 되었다. 나는 마침 유락동 산 1번지를 구입하여 예배를 보기 시작한 교회의 담쌓은 공사의 노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하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말일에 회복된 하나님의 참 교회요, 요셉 스미스는 천사의 방문을 받아 금판을 번역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지켜 본 선교사님들은 나에게 침례를 권유하였고, 1957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에 유락동 교회의 목욕탕을 개조하여 처음 침례식을 베풀던 날에 카 장로로부터 침례를 받았고, 다음날 일요일 성찬식에서 김호직 박사로부터 안수를 받았다. 그해 6월 30일 던 앤. 앤더슨 삼청 지부장으로부터 집사에 성임되었고, 1958년 4월 6일 로버트 토마스 스타웃 장로로부터 교사에 성임되었으며, 그 해 8월 24일에 김호직 박사로부터 제사직에 성임되었고, 1959년 11월 1일 북극동 선교부장인 파울 이 앤드루스 선교부장으로 부터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음악을 사랑함

학창 시절 여수에서 장로 교회에 다닐 때, 나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항상 부러웠다. 배워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지만 그 당

시 상황으로서는 레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새벽 기도가 끝나 사람들이 돌아간 후 교회에 남아 피아노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했다. 혼자서 시작했지만 바이엘 교본을 한달 만에 떼고 찬송가 치는 연습을 하였다. 처음에는 조표가 없는 다 장조의 찬송가만 골라 멜로디를 두 손으로 치다 나중에는 #, b이 있는 찬송가를 조금씩 연습하였다.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시작하여 5월 둘째 주일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중창을 반주해 줄 수 있었다.

1955년 신학교에 진학해 본과 1학년이 되던 봄에 정동 감리 교회에 오후 2시부터 영어 예배를 본다는 얘기를 듣고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하여 그곳을 찾았다. 영어로 하는 예배를 완전히 알아 듣지는 못하였지만 나는 그곳에서 인생의 전기가 되는 사건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필그림(Pilgrim) 합창단과의 만남이었다. 그들이 부른 성가는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의 합창단이 있다면 이러한 합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필그림은 일류 성악가로 구성된 합창단이었으니 내가 놀란 것은 당연했다. 바리톤 오현명, 테너 안형일, 김신환, 소프라노 채리숙, 앨토 이영애 등 오늘날 우리 음악계의 중진들이 당시 필그림 합창단의 구성원들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코튀봉겐을 사서 혼자 공부를 하며 필그림과 같은 합창단에 들어갈 목표를 세웠다. 그런데 그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필그림의 지휘자 이동훈



선생이 내가 다니던 장로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오신 것이다. 나는 당시 주일학교 음악 선생과 중등부 학생 성가대 지휘자, 성인 성가대 테너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서 이동훈 선생이 나를 부르시더니 필그림에 자리가 비어있는데 함께 일해 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였다. 필그림은 일주일에 두 번 지금의 종로 서적 자리에 있었던 외국어 대학에서 연습을 했고, 일요일 아침에는 색(SAC) 버스를 타고 미8군에 들어가 사우스 채플(South Chapel)에서 예배시 성가를 부르고, 곧이어 한양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러한 일정중 일요일 일정에는 대부분 필그림의 유력한 멤버중 한사람이었던 김신환 씨는 빠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김신환 씨가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송별 음악회를 했는데 그곳에 김호직 박사도 함께 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김호직 박사는 범 사회적으로 활동을 했던 이 훌륭한 합창단의 후원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아무튼 나의 음악에 대한 경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아직 우리 교회에는 제대로 번역된 찬송가가 없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영어로 찬송가를 불렀다. 일부 회원들은 그것을 우리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사와 음악이 맞지 않아 제대로 부르기가 어려웠다. 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런 찬송가 약 50곡을 모아 일부 가사를 음악에 맞게

고쳐서 등사 원지에 악보와 가사를 그려 넣은 다음 등사하고 제본하여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하였다.

침례를 받기 전부터 나는 우리 교회 합창단의 지휘를 했는데 당시 반주자는 김호직 박사의 따님인 김정숙 자매였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성탄절날 '할렐루야'를 연습하여 발표하기도 하였다. 제2대 서울 선교부장인 팔머 선교부장님과 팔머 자매님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나에게 미국에서 합창곡집과 독창곡집을 사다 주기도 하시며 교회에서 음악을 활성화 해보도록 권고해 주셨다. 나는 선교사들로 합창단을 만들어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발표회도 가졌다.

이러한 그 후 지역 대회 합창단 지휘자, 물론 합창단 지휘자, 그리고 현재는 온누리 합창단 단장 등으로 교회에서 음악과 계속 해서 인연을 맺고 있다.

우리는 개척자

예전에는 특별히 시간을 보낼 만한 것과 장소가 없어서 다들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활동했다. 당시 교회에서는 활동으로 포크 댄스를 했는데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이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런 활동들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세상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교회에 속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조

금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키워 감으로써 이 나라 이 땅에 회복된 복음을 가진 교회의 기초를 굳건히 다져 왔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졌고, 교회 활동이 아니라도 시간을 보낼 곳이 많아져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들이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이 나라에서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우리 모든 성도는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개척자들이다.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쫓아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여행한 개척자처럼, 우리 한국의 성도들도 우리의 후세를 위해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더욱 강한 신앙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이다. 1956년부터 시작된 나의 신앙의 여행은 아직도 개척자로서 계속되고 있다.

편집자 주:

1. 정대판 형제는 현재 인천 스테이크에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부인 황안에 자매와의 사이에 2남(승웅, 승일)을 두고 있다. 그를 교회에 소개한 장세천 형제는 한국 교회 초창기에 성찬 축복문과 신앙개조를 번역했으며,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2. 이 기사는 1997년 4월 7일 정대판 형제와 인터뷰한 것을 기초로 스펜서 제이 팔머 형제가 쓴 한국의 초기 말일성도의 147쪽 '정대판, 황안에' 부분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개척자 150주년 기념 6월 6일 헌혈에 즈음하여

최석구(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



지혜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킴으로써 뼈에 건강한
골수를 축복 받은
말일성도보다 헌혈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혈병이나 재생 불량성 빈혈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혈 받는 것을 보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 분들은 혈액을 생성하는 골수의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며, 수혈받지 않으면 생명의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의 경우에도 신장에서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의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한 빈혈이 오게 되며, 적절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혈 받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 사고, 각종 수술, 간 질환, 내장 출혈 등 여러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수혈은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게 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병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가족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 가족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주어서라도 환자의 생명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1997년 6월 6일 현충일에 생면 부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 교회적인 헌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킴으로써 뼈에 건강한 골수를 축복 받은 말일성도보다 헌혈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996년에는 2백 15만 명이 헌혈에 참여했다고 하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중에 헌혈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추후에 필요하면 자신이 헌혈한 양만큼 헌혈한 양 만큼 헌혈자 자신이나 자기 주위의 이웃이 무료로 수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이웃들이 나의 피를 필요로 하니, 나의 몸이 헌혈하기에 적합하다면(만 16세 이상 65세 미만, 남자 50kg 이상, 여자 45kg 이상) 나의 생명을 나누어 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헌혈 후엔 평소보다 많은 수분 섭취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좋으며, 아울러 철분이 많은 음식(간, 멸치, 조개, 시금치, 달걀 노른자, 해조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라고 하시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같은 피를 이웃,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을 것이며, 주님의 권고대로 행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헌혈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신의 영향력이 함께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키지고 그로 인해 복음을 나누는 일에 큰 진척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 주)

최석구 서울 동 스테이크 부장은 내과 의사로서 현재 서울 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은 매일 500cc정도의 혈액을 새로 만들어내고 구 혈액의 구성 성분 중 적혈구는 그 수명이 약 120일, 백혈구는 2-10일, 혈소판은 4-5일 정도로 피는 늘 생기고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헌혈하게 되면 골수에서 혈액을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이 생산해 냄으로써 헌혈에 의해 생긴 부족한 혈액량을 채우게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헌혈하는 피의 양은 헌혈자의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만큼 1회 320-400cc의 체혈량으로 정했으며 헌혈하는 최소 간격은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면 건강 검진의

어? 미국 사람이네!

이현숙(광주 스테이크 농성 워드)

저의 부모님은 무신론자이셨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 처음으로 종교를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교직자이셨지만 단 한번도 종교에 관해 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 주부였던 어머니도 5년 전부터 천주교에 나가고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종교에 관해서 얘기 나눈 기억이 없는 것은 아버님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우연히 불교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광주 보문사에서 학생 불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범명을 받고 불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직 17, 8세의 어린 소녀였지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학 때면 깊은 산 속 암자에서 생활하곤 하였습니다. 산에까지 따라와서 어린 딸을 혼자 두고 산을 내려가시던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을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가슴 밑바닥까지 느끼고 있던 저에게는 어머니의 아픈 마음보다 저의 문제가 더욱 절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자 생활은 방황하던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대학교 1학년 때는 사감 선생님을 따라 1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에도 다녀 보았지만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후 1987년에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농성동에 있는 성당에 나갔지만 교리를 받던 중 임신으로 인한 환두통이 너무 심해서 교리를 중단했고, 1995년 겨울엔 염주동 성당을 다시 나가게 되었지만 교리 공부가 거의 끝나고 신부님 면접만

남은 상태에서 저는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 마리아 등... 기독교에 대해 품었던 저의 의구심이나 종교 자체의 문제점 등에 대해 평소 가졌던 궁금한 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의구심 더욱 깊어만 갔기 때문입니다. 1996년 봄에는 아파트 후문쪽에 있는 교회에 가 보았지만 역시 몇 번 나가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함께 나가 보자고 해도 전혀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교회에 있을 때면 교회 밖의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들 역시 냉담했습니다. 안식일에 가족이 함께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추석 연휴 마지막날 12시 경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응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딩-동"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미국 사람이네!"

도영이가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무어라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안가요."라고 도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웬일인지 제 마음은 밖에 있는 낯선 이방인을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응접실로 나와 "외국인들이시면 우선 문을 열고 이야기나 들어 보지 그러니."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생긴 백인 청년 두 사람이 천사 같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등에는 배낭 하나씩을 메고 하얀 와이셔츠에 곤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검정 바탕에 흰색 글씨로 '루이스 장로', '줄링거 장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외국인이었지만 웬일인지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응접실에서 이 것 저 것을 이야기 했고, 저는 그분들에게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연스런 이 두 천사들의 방문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는 별로 기대 하지도 않았고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 두 외국인의 방문은 우리 가족을 기쁘게 했습니다.

며칠 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참석 후 약속 장소에 가도 될 일이었지만 우리를 교회까지 데려다 주곤 아무리 권유해도 그냥 가 버렸습니다. 나는 섭섭한 마음에 화가 나서 길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남편 차의 뒷모습을 보며 울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역시 이 교회도 남편을 인도할 수는 없을거야!'라고 생각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교회 내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았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단상도 낮았고, 사람들도 아주 적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수선했고, 목사 같은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엄숙해 보이지도 않고 순서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포근해 보였고 가족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가려고 하자 주일학교 시간이라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처음 저희 집을 방문했던 루이스 장로와 줄링거 장로가 반갑게 인사하며 미소로 맞아 주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더욱 천사 같았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예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것처럼 친절하게 악수하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편하고 낯설지 않다는 것이 정말 나를 기쁘게 했지만 혼자 가 버린 남편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자매님이 다가오더니 친근하게 대해 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름이 '김현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집에 돌아왔고 처음으로 아이들은 교회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즐거워 해서 저는 아이들과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열심히 아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고 한번만 참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두 분 장로님들도 매일같이 전화를 하자 남편도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전부가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든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다녀온 후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내 힘만 믿고 살아 가던 남편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안식일날 아침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친구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는 우리 가족이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함께 그 친구분도 교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유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광원 씨도 교회를 한 번 다녀온 후 매주 나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부터 수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집에서 복음 토론을 시작하게 되었고, 첫번째 토론이 끝날 무렵 유광원 형제님도 함께 공

부하게 되었습니다. 유광원 형제님의 막내 딸 '우리'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3주 정도 복음 토론을 함께 했던 루이스 장로님이 대전으로 이동을 가시게 되었지만 우리 가족과의 복음 토론을 위해 매주 광주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루이스 장로의 헌신적인 봉사가 우리 가족을 더욱 채찍질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장로님, 린드하크 장로님, 줄링거 장로님, 허감 장로님, 한재희 자매님, 김은정 자매님... 이들 선교사님들과의 따뜻하고 잦은 만남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 직장 갖기를 원하고 있던 김현희 자매님이 제가 다니는 회사에 함께 다니게 되었고, 한 직장 안에서 김 자매님과의 생활은 저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직장에 출근해 보니 김현희 자매님이 먼저 나와 있었고 저의 책상 위에는 분홍빛 장미가 예쁜 꽃병에서 나를 반겨 주었습니다. 또한 제 책상의 묵은 때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고, 자매님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지만 받아서 느끼는 행복도 이에 못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바쁘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우리 가족과 유광원 형제님이 1996년 12월 17일 오후 3시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식은 생각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침례를 받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넘쳤습니다.

침례를 받기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너무 고생하신 선교사님들께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술, 담배를 끊도록 도와주기 위해 10일 정도 매일 아침 새벽녘에 현관문 밖에 한 장의 편지와 껌, 과일, 과자 등을 담은 봉투를 두고 간 줄링거 장로님과 린드하트 장로님의 눈물어린 정성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의 복음을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욱 열심히 전해서 미국 유타주가 미국에서도 가장 사람이 살기에 좋은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가족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침례를 받고 난 후의 이현숙 자매 가족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197기
(1997년 3월 3일 - 3월 21일)



〈성명〉	〈출신지〉	〈선교부〉
공민석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대전 선교부
구순덕 자매	부산 서 지방부 괴정 지부	대전 선교부
김갑수 장로	인천 스테이크 주안 와드	대전 선교부
김경자 자매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	서울 선교부
김경중 장로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대전 선교부
우정희 자매	천안 지방부 천안 지부	부산 선교부

사진 설명: 왼쪽부터: 구순덕, 우정희, 김경자, 김경중, 공민석, 김갑수

해임된 성전 선교사

- ♣ 헨리 장로 부부
(Gerald F. Henrie/
Carolie Jane M. Henrie)
봉사 기간:
1995년 10월 12일 - 1997년 3월 16일
- ♣ 쉥크 장로 부부
(Delva R. Schank/
Loroy C. Schank)
봉사 기간:
1995년 2월 21일 - 1997년 4월 4일

역원 변경

인천 스테이크

농아 지부 지부장: 정웅섭

(전임자: 박주현)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지부장: 윤봉기

(전임자: 안경석)

해외로 부름 받은 선교사



손민주 자매

영동 스테이크

1997년 4월 9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부



이준유 자매

청주 스테이크

1997년 5월 7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선교부

원고모집

성도의 벗 편집실에서는 개척자 15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공보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척자 관련 시 및 간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내용: 개척자들의 신앙의 유산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용
- 분량: 시—A4지 1단 1매 이내
간증—A4지 1.5매 이내
- 마감일: 1997년 5월 30일
-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우) 133-600
Fax: 02-254-3225
Hitel: ldschrch

그가 누구인지 알리라

“성신으로써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은사를 주시며”
(교리와 성약 46:13)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이 신앙이라 함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성신의 증거로 확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간증을 지니는 것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구하라고 권고해 주신 영의 중요한 은사들 중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는가?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간구와 실천이다. 고든 비 힝클리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몸소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

“그것(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모든 진리의 근원에 대해 열심히 구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대로 사는 것 즉,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실험해 봄으로써 얻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성신의 권세로써, 확신과 간증과 분명한 지식은 이것들로부터 얻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합니다.”(성도의 빛, 1995년 10월호, 6쪽)

간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행사가 아닌 과정이다. 일단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지속적인 공부와 순종과 봉사를 통해서 그 확신이 강화된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시편 27:1)

1945년, 신시아 멀로리는 대학 3학년의 전 학비를 벌기 위해 남유타의 한 관광 숙소에서 여름 일자리를 얻었다. 같이 근무하던, 역시 대학생인 몇몇 동료들은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회원이었다. 그들의 주례 종교 토론 그룹에 초대받고 신시아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집을 떠나 있는 수년 동안 영적인 생활보다는 다른 흥미거리에 마음을 두었기에 그 초대에 응하게 되었다. 그 그룹은 규모가 작았고, 여름 동안 관광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세미나리 교사가 이

끌고 있었다.

그녀는 토론을 경청했고 그들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성신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까지는 종교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신시아는 숙소 근처, 탁 트인 푸른 벌판으로 나갔다. 거기서 신시아는 진리를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성신의 권세로써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날은 어두웠지만 숙소에서 비치는 불빛이 어둠 속에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은 그녀의 마음에 안도감을 심어 주었다. 간구를 마치기도 전에 한 줄기 빛이 그녀 가슴 속을 환하게 밝혀 주는 것 같았다. 응답이 분명하게 온 것이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그 순간에 신시아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졌다. 이제 할 일은 침례를 받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기운이 솟구쳤으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구세주의 확인과 사랑을 느끼면서 신시아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다.

오늘도 신시아는 주님께 헌신하며 복음에 몰두하고 있다. 그녀의 간증은 성신으로 강화되어 날로 그 기쁨을 더해가고 있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키우며 강화시킬 수 있는가?

• 여러분은 주님을 앎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

그림: 세릴린 보이어 도터



“룻을 도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룻 해리스 스웨너
그림: 데이비드 린

나는 영적으로 둔감해짐을 느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내게 마음을 기울이시는지, 또는 나를 진정 사랑하고 계신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신듯 했다.

애들의 끊임없는 요구에다 교회 임무, 더구나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자주 함께 있어 주지 못하는 바쁜 남편 등으로 인해 내 자신 스스로가 질식할 것만 같은 우울함에 사로잡혔다. 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를 응하다 보면, 나는 도무지 성취감이란 느끼지도 못하고 늘상 중압감에 압도됨을 느꼈다.

가정 방문 교사들이 월례 방문차 왔을 때, 나는 예의 그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고녀의 아픔을 마음 속에 숨겨 두었다. 우리는 일상사에 대한 소식을 서로 나누었다. 나는 그때 그들이 나누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할 수 없다. 그들의 말은 그저 공허하게 울리며 나를 스쳐갈 뿐이었다.

문가에서 서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 무슨 시간의 낭비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정말 마음에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잖아. 만약 알았다 하더라도, 마음이나 쓸까?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라도 자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단조롭게 일상적인 허드레 일들을 해 나갔다. 아

